

청와대, 조국 임명 강행 수순...정국 긴장 최고조

가족 증인 놓고 '강 대 강'...조국청문회 사실상 무산

민주 "청문회는 후보 검증의 장...국민과 직접 만날 것"

한국당 "의혹 규명 핵심...증인채택요구서 의결하면 가능"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2~3일)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사실상 청문회가 무산되는 수순이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늦어도 추석연휴 시작(12일) 전에 조국 장관 임명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국 긴장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한국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2~3일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

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한국당이 증인 문제에 대해 철회할 것만 철회하면 된다"면서 "청문회는 후보 검증의 장이지 가족 신문의 장이 아닌데 어머니와 아내, 딸을 꼭 증인으로 내놓고 비인륜적으로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 오전에 법제사법위에서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면서 "한국당이 끝내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것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한국당의 증인 요구가 청문회 일정을 지연시켜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 국면을 장기화, 궁극적으로 나라를 위한 정치 공세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 역시 닷에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라면서 "한국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후보자를 공격하고 끌어내려 정권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정권에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여야 협상에 따라 조 후보자의 동생이 자진 출석하는 것은 수용하는 등 증인 채택 문제에 좀 더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의혹 규명을 핵심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해 청문회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당장, 한국당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면서 전방위적인 대어 압박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핵심 증인에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하면 5~6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면서 "내일 법사위를 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2~3일 청문회는 민주당에 의해 8월 29일(핵심 증인 채택이 안 되면서)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이른바 국민청문회에 대해서는 "결국 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과 한국당간 절충을 모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

자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겠다"면서 "그 대신 입시 부정 문제, 사모펀드 문제, 옹동학원 문제의 핵심 증인인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증인 채택만큼은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 문제 등을 놓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종적으로 불발되고 조 후보자가 임명 수순을 밟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여당은 정국 급랭에 따른 국회 파행과 여론 악화의 부담이 큰데다 야당 역시 국회 의무인 청문회를 방기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여야가 막판에 증인 문제를 놓고 극적인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여사와 1일 오후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태극은 공식방문, 미얀마·라오스는 국민방문이다. 한국 대통령의 라오스 국민방문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김정은 선물 풍산개 '곰이' 새끼 1마리 광주서 키운다

광주시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풍산개 새끼(암컷) 한 마리를 분양받아 우치동물원에서 키우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로 보내온 풍산개 '곰이'가 같은 해 11월 출산한 6마리 중 한 마리다. 청와대가 전국 지자체에 분양 계획을 밝히면서 광주시도 분양을 요청해 이뤄졌다.

이번에 우치동물원에서 새 삶을 갖게 된 풍산개 이름은 '별이다. 새끼 6마리 중 몸집은 가장 작지만 장난기도 많고 활발하며, 특히 공놀이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로 분양된 별이 외에 나머지 다섯 마리도 서울, 인천, 대전의 동물원에 각각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우치동물원은 풍산개 수놈(10세), 암놈(7세) 2마리를 보유하고



풍산개 '별이'.

있다. 윤병철 우치동물원 관리사무소장은 "별이'의 간단한 건강 체크 등을 한 뒤 동물원 내 보금자리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며 "남북 평화의 염원을 담은 상징적인 존재만큼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해외 순방 문 대통령, 조 후보자 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

전자결재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바로 밟겠다는 것이다.

일단, 문 대통령이 1일부터 6일까지 아세안 3국 순방을 떠나는 만큼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 이전까지도 기한을 정해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송부 요청은 3일에 그대로 하더라도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청문회 이후까지도 기한을 설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한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한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의 1차 송부기한이 끝나는 바로 다음날인 3일 곧장 재송부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은 대부분 1차 기한 다음날 재송부요청을 했다. 관례상 이번에도 3일에 재송부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6일(금요일)에 귀국하는 만큼 6일까지는 국회에 제출시한을 주고, 그래도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문 대통령이 국내에 돌아온 뒤 첫 근무일인 9일(월요일)에 임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3일 재송부요청을 하면서 "4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 "5일까지 보고서를 내달라"라고 짧은 시간만을 국회에 준 뒤, 이 기한을 국회가 지키지 못하면 순방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하는 방안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마케팅 효과...애국펀드 가입액 400억 돌파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출시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입 이후 강한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NH-아문디자산운용 관계자는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액이 8월 29일 기준으로 총 4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8월 14일 출시된 이 펀드는 농협 계열사들이 기초 투자금으로 낸 300억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가입액이 1억원에 못 미쳐 같은 달 23일까지 총 가입액이 305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가입한 8월 26일 이후 분위기가 바뀌면서 나흘 간 90억원 넘게 증가했다.

대통령 가입에 따른 홍보 효과가 컸다. 문 대통령은 가입 이후 민주당 지도부와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이 상품 가입에 잇따라 동참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 관계자는 "판매사에서 모집한 펀드 가입액이 운용사로 넘어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아직 정확한 액수는 집계 중이지만 8월 29일로 가입액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 대통령 가입 이후 하루 평균 20억~30억원 규모로 판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펀드 가입은 일반적으로 투자 활성화, 자본시장 안정 등 시대 상황에 맞는 정책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무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최근 우리 정부의 '극일'(克日) 기조에 어울리는 펀드인 셈이다.

펀드의 초기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SK머티리얼즈 등 대형주를 비롯한 국내 주식 60여종목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주식 27개 종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1566-9988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J16 40 point 8 5 1

J10 20 point 1 6 5 2 4

J8 14 point 6 8 2 4 7 5 8 1

J7 12 point 2 5 1 6 4 9 7 8 3

J6 10 point 1 3 0 7 5 8 4 9 2

J5 8 point 2 4 6 3 7 1 2 8 0

J3 6 point 4 6 2 8 1 0 9 7 3

J2 5 point 5 7 6 2 1 4 3 0 2

J1 4 point 0 3 1 7 0 0 0 0

J1+ 3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